

무리한 투자가 부른 재앙... 지자체 파산·지역 소멸

지방소멸 극복 원년 만드자 <상> 日 유바리市 실패사례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본보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등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 현지를 찾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봤다. 일본 지자체들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취재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최대 석탄생산지 호황...12만 인구 폐광후 관광시설 재정 과도한 투입 부채 급증...지방세 인상 주민 고통 인구유출 가속화...6천명 남아 '폐허'

책 및 잇따른 탄광 사고로 인해 모든 탄광이 폐광 절차를 밟으며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79년 유바리 시장으로 당선된 나카타 데쓰지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진흥을 목표로 '탄광에서 관광으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석탄역사 마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전개했다. 유바리시는 석탄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석탄역사관, 세계동물관, 로봇 대과학관, 메론성,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 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방문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다시금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일본 버블경제 붕괴와 관광패턴의 변화로 1991년 231만명에 육박했던 관광객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시설투자금으로만 176억엔을 투입했던 유바리시는 수익성 악화로 부채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석탄산업 몰락에 이어



일본 최대 석탄 생산지로 호황을 누렸던 일본의 유바리시가 폐광 이후 무분별한 관광 개발 사업과 지방재정 투자로 몰락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던 건물이 시간이 흘러 흉물로 남아 있는 모습.

관광산업까지 실패하자 유바리시는 일본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선정되며 결국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달 3일 현지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유바리로 향하는 길.

버스 차장 너머로 보이는 외부 모습은 그야말로 황폐했다. 곳곳에 즐비한 폐가와 언제 영업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득득 상가, 관리되지 않고 무성히 자라난 잡초와 사람을 찾기 어려운 텅 빈 길거리

까지, 과거의 호황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렇게 도착한 '유바리 석탄 박물관'. 유바리시가 개발한 관광시설 중 현재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박물관은 1980년대에 개관해 2016년 콘텐츠 개선을 통해 지난 2018년 4월28일 재개관하며 간신히 관광 명맥을 잇고 있으나 그리 순탄치 않다. 박물관 내부도 옛 갱도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특색이 없고, 근처에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가고 있던 호

수 카페도 오랜 시간 방치돼 스산하기까지 했다.

실제 유바리시의 파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유바리시는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 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인상해, 전국에서 세금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 됐다. 반면 공공시설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합되거나 폐지돼 공공서비스는 최저 수준이다.

▶ 2면에 계속

일본 유바리시=글 사진 오지현 기자

전남도, 신안 하의도 DJ 생가 문화유산 지정

"민주·인권·평화 DJ정신 출발점" 역사인물 유적·섬 전통민가 특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고동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안 하의도 생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신안 하의도 김 대통령 생가와 여수 달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장흥 대원사 소장 불교전적 등 7건을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의도 생가는 1924년 출생한 김 전 대통령이 하의보통학교(4년제)를 다니다가 1936년 목표로 이사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던 곳이다.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키웠던 공간으로, 생가는 역사 인물 유적과 섬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수호한 공로로 노벨평

화상을 수상했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유산성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을 이끈 김대중 정신의 출발점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 지정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그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하의도 생가와 함께 '여수 달마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장흥 대원사 불교전적', '나주 여재각', '보성 광주이씨 영모재', '강진 황대중 정려유적', '강진 김여주 신도비와 현무묘' 등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또 △순천 금룡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 △해남 방죽섬과 중수비 △해남 남천교 및 어성교 중수비와 청류정 표석 △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나주 적서정 △장흥 열호재 △장흥 수의봉 위원량 망국암각사문 8건을 문화유산 지정 예고했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

오지현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